

HOLY HABIT MOVEMENT PART 3

7. 간증 - 하나님만 드러나는 삶

1. 누군가의 간증을 듣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경험이 있나요? 왜 그런 반응이 나왔다고 생각하나요?

❶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

간증은 단순한 이야기나 이론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신다는 증거를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이처럼 누군가의 간증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나 인도하심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때, 하나님이 먼 분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함께하시는 분임을 느끼게 됩니다.

❷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능력의 대조가 뚜렷하게 드러나기 때문

간증은 인간의 절망, 낙심, 실패 속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때 그 은혜와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참된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합니다. 느부갓네살도 자신의 교만과 낮아짐 그리고 다시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❸ 공동체적인 믿음의 확증이 되기 때문에

간증은 듣는 사람에게도 믿음의 격려와 확신을 줍니다. 혼자서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타인의 삶을 통해 보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 느부갓네살처럼 누군가의 삶에 임하신 하나님의 역사(간증)를 들을 때, 우리는 그 진실성과 능력을 통해 감동을 받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 반응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믿음을 불러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2. 누군가의 간증을 듣고 부정적인 감정이 들었던 경험이 있나요? 왜 그런 반응이 나왔다고 생각하나요?

❶ 신앙이 거래처럼 느껴질 때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갚아주셨다”는 식의 간증은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조건부로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하게 만듭니다. 또한 그런 간증은 때때로 신앙생활의 성패가 외적인 성공이나 물질적 축복에 달려 있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불편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② 간증자의 태도에서 무심한 교만이 느껴질 때

때때로 어떤 간증은 진심보다는 자랑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바로 겸손하지 않은 간증입니다. 겸손 없이 자신의 성공과 능력을 부각시키는 듯한 간증은 오히려 하나님보다는 사람 자신이 주인공처럼 보이게 합니다. 그럴 때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닌 거리감, 거절감, 혹은 열등감과 같은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만한 간증은 간증이라 할 수 없습니다.

- 간증으로 인해 부정적인 감정이 드는 이유는 바로 신앙의 본질이 왜곡되거나 훼손되었다고 느낄 때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하는 모든 간증이 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3. 스스로 돌아봤을 때 나의 기도는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가까운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는 열망에 가까운가요?

- 대체로 조건부 기도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도하는 것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기도를 무조건 거절하거나 듣지 않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기도밖에 할 수 없는 불의한 나를 이해하시고, 또한 이 기도를 통해 나의 믿음이 현재 얼마나 연약하고 어린지 보게 하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바꾸어 주십니다.
- 이처럼 우리의 기도는 처음부터 순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내 안의 동기와 목적이 점점 바뀌어갑니다. 따라서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려는 순전한 믿음입니다.

4. 나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내 삶의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 하나님을 성경적 표현으로도 찬양할 수 있지만, 동시에 내 삶의 언어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간증입니다.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 나의 고민을 해결하신 하나님, 시련을 이겨내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 나의 말로 적어봅시다.

5. 하나님만 자랑하는 참된 간증을 하려면 먼저 내 안에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 다니엘은 자신의 성취가 하나님의 철저한 의도와 계획 아래 이루어졌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도 알지 못했던 은밀한 비밀을 해석하면서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알려 주신 것임을 반드시 밝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승리를 안겨 주실 때 그 일을 이루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간증은 자신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목록을 나열하기 보다 그 축복의 근원을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또한 간증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간증입니다. **없던 은혜가 새롭게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부어주신 은혜를 발견하여 드러내는 것입니다.**
- 따라서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순전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더욱 귀하게 여기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가정예배 가이드

1. 최근 누군가에게 자랑했던 경험이 있나요? 무엇을 자랑했나요?

-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아닌 나 자신을 자랑했던 것이 있다면 무엇이었는지 솔직하게 나누어 봅시다.

2. 상을 받거나 승진하거나 목표했던 일을 이뤘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무엇인가요?

- 일반적으로 사람은 성취에 있어서 자신의 수고와 노력이 보상받고 인정받았다는 것에 큰 감격을 얻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런 감격에 도취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기적의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이방 땅에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믿고 따르는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에 마음을 쏟았습니다. 반대로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위대한 궁전과 성벽을 바라보며 자신의 성취에 빠져들었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짐승처럼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드디어 자신의 성취가 아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어 고백합니다(단 4:32, 34).

3. 나의 자랑거리를 하나님을 자랑하는 말로 바꾸어 고백해 봅시다.

- 이 요청은,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재해석하여 고백하라는 의미입니다. 즉, ‘나 중심의 자랑’을 ‘하나님 중심의 찬양’으로 바꾸는 훈련입니다.

• 구체적 예시

❶ “저는 항상 성실해서 어떤 일이든 끝까지 잘 해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꾸준함과 인내심을 주셨고 그 성실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신 걸 요즘 느낍니다. 결국 잘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어 주신 은혜였습니다.”

❷ “사람들이 저를 믿고 따르는 걸 보면 저도 괜찮은 리더 같아요.”

“사람들이 저를 믿어주는 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신뢰감과 성품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진짜 리더는 하나님이시고, 저는 **그분의 방식을 따라 하는 것이며, 그 분을 닮아가는 중이에요.**”

③ “저는 큰 실패를 겪었지만 결국 회복했고, 실패가 자산이 됐어요.”

“그 실패의 자리에서 저를 다시 일으켜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제가 강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손이 제 약함 위에 덮였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4. 다니엘 프로젝트를 진행한 동안 각자에게 일어난 변화를 간증합니다.

- 거룩한 3가지 습관(말씀암송, 기도, 감사)을 세워가며 주신 은혜에 대해서, 21개 주제를 다루며 내 생각과 마음의 변화시킨 것에 대해서, 가정예배를 통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등 작은 변화일 지라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함께 자랑해 봅시다.